

지역 혐오·기피시설, 주민친화공간으로 탈바꿈

인천시 자연재난과
2020.2.18.

광주시 문화기반조성과
2020.2.10.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건축과
2020.2.13.



남동1유수지 조감도(상), 삼산유수지 조감도(하)

출처: 인천시, (2020). 인천시, 원도심 내 유수지 주민친화공간으로 거듭난다. 2월 18일 보도자료.

인천시, 원도심 내 유수지에 체육·문화시설 조성

인천시는 저어새 서식지로 유명하지만 악취 발생으로 기피시설인 남동1 유수지와 우천 시 잦은 침수로 체육시설 이용이 불편한 삼산유수지 등 원도심 유수지 6개소의 환경을 개선하고, 유수지 내 체육 및 문화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의 1 단계로 2025년까지 349억 원을 투입하여 삼산유수지 복개 및 남동1 유수지 일부 준설을 시행하고, 2 단계로 2030년까지 885억을 투입하여 삼산유수지에 체육시설 설치와 남동1 유수지 잔여구간 전체를 준설할 계획이다.

광주시, 상무소각장에 지역 대표 도서관 건립 추진

지역 혐오시설이자 주민 간 갈등과 분열의 상징이던 광주 상무소각장이 지역을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다시 태어난다. 광주시는 2016년 12월 상무소각장 폐쇄 이후 부지의 재활용 방안을 모색해왔다. 시립도서관을 조성한다는 사업을 확정된 후에는 연면적 약 1만 1,000㎡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했으며, 지난 2월 세르비아의 건축가 브라니슬라프 레딕(ARCVS)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당선작은 지표면 아래의 공간과 소각장을 연결하는 브릿지를 다양한 기능을 담은 공간으로 제시하였으며, 특히 상부 브릿지의 내부공간은 도서관의 새로운 전경을 만들어낼 것으로 평가됐다. 시는 이번 당선작이 “지역의 기존 도시공간 및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뚜렷한 수평적 랜드마크를 제안하고 있다”면서, 혐오시설인 옛 소각장 부지를 시민들을 위한 교육·문화 시설로 탈바꿈한다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우수한 건축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광주시 대표 도서관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출처: 광주시, (2020). 광주대표도서관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2월 12일 보도자료.